바라밀선원, 라오스 오지에 초등학교 건립

통도사 김해포교당 바라밀선원
8월 16일 나두앙 마을서 개교식
3년만 결실…첫 해외 교육 불사

성낙두 경남지사장


통도사 김해포교당 바라밀선원이 8월 16일 라오스 방비엥 나두앙에 '바라밀선원 초등학교'를 개교했다.

영축총림 통도사 김해포교당 바라밀선원(주지 인해 스님, 통도사 강주)이 라오스의 오지 마을인 방비엥 나두앙에 초등학교를 건립했다.

바라밀선원은 8월 16일 라오스 현지에서 '나두앙 바라밀선원 초등학교' 개교식을 봉행했다. 이번 불사는 2022년부터 시작된 '108암자 순례기도'와 '금강경 천일기도'를 통해 모인 원력이 3년 만에 결실을 본 것으로, 바라밀선원의 첫 해외 교육 불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나두앙은 소수민족인 몽족 불자들이 모여 사는 오지 마을이다. 그간 어린이들은 천막 아래서 수업하거나 비가 오면 휴교를 반복해야 했다. 바라밀선원은 지난해 방비엥 교육청과 협약을 맺고 KCP종합건설과 함께 신축 공사를 진행해, 8개 교실과 교무실·강의실·해우소 등 4개 동 규모의 학교를 완공했다.

학교는 수업뿐 아니라 마을회관, 임시 보건소 등 주민 생활의 중심 공간으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현지 주민들은 "마을에서 가장 크고 튼튼한 건물"이라며 환영했다.

이날 개교식에는 인해 스님을 비롯해 서울 만성사 진만 스님, 덕암 스님, 광법 스님, 김미수 수트래블 대표, 한선 허부수 포교사회장, 김종환 신도회장, 굿따리 방비엥 교육청장, 푸웡 짠펭싸이 교장, 108암자 순례단과 현지 학생·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현판 제막과 상징패 기념식, 삼귀의·반야심경 봉독, 경과보고, 인사말, 법어, 축사, 어린이들의 축가와 꽃목걸이 환영식으로 진행됐다. 바라밀선원 신도들은 가방과 학용품을 학생들에게 선물해 기쁨을 더했다.

인해 스님은 법어에서 "작은 보시와 정성이 모여 오늘의 결실을 이루었다. 학교 건립은 곧 마을에 도량을 세우는 불사와 같다"며 "교육만이 세상을 바꾸고 부처님 법을 널리 전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 "라오스의 아이들이 불법의 씨앗을 품고 성장해 이 나라의 희망이 되길 바란다"며 "이 원력이 이어져 제2, 제3의 학교가 세워지기를 발원한다"고 밝혔다.

김종환 신도회장은 "2022년 화순 운주사에서 시작한 108암자 순례 원력이 천일을 향해 가는 길목에서 개교식을 맞게 돼 감격스럽다"며 "간절하면 이루어진다는 주지 스님의 가르침이 그대로 실현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굿따리 방비엥 교육청장은 "아이들의 배움터를 마련해 준 한국 불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학교 건물과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 어린이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바라밀선원은 이번 라오스 초등학교 개교를 시작으로, 캄보디아와 네팔 오지 마을에도 제2·제3의 학교를 건립한다는 원력을 세웠다. 이를 위해 오는 10월부터는 '33관음성지순례'를 이어가며 불사 동참을 이끌어 낼 계획이다.

개교식 후 책가방과 학용품을 받아든 학생들은 행복한 미소로 답했고, 마을 주민들은 전통 축원 의식을 올리며 학교의 앞날을 축복했다.

영축총림 통도사, 생전예수재 회향

8월 19일, 설법전 및 경내 일원
"청정심 회복해 중생에 회향"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덕 스님)는 8월 19일 설법전과 경내 일원에서 을사년 생전예수재 회향 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이번 예수재는 지난 7월 2일 입재해 매주 수요일 불공·법문·천도재가 이어졌다. 7월 2일 조계종 종정 중봉성파 대종사의 법문을 시작으로 △3재(7월 22일) 법산 대종사(조계종 법계위원장), △5재(8월 5일) 덕문 스님(통도사 율주)이 법문을 했다.

회향 법회는 설법전에서 신중작법, 예수작법, 상단·중단·하단 도권공 및 시식 순으로 엄숙히 진행됐다. 작법은 통도사 염불원 스님들이 전통의식의 원형을 충실히 재현해 불자들에게 신심을 더했다. 이어 신도들은 금강계단 앞에 모여 사리탑을 돌며 봉송 의식을 갖고, 소대로 향하며 법회를 원만히 회향했다.

주지 현덕 스님은 회향 법어를 통해 "오늘 행사를 위해 전통 작법을 재현해준 염불원장 영산 스님과 염불원 대중 스님들, 그리고 물심양면으로 힘을 보태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전했다.

이어 "생전예수재의 핵심은 탐진치 삼독을 여의고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 청정심을 회복하며, 그 힘으로 모든 중생에게 이익을 베푸는 것"이라며 "동참한 공덕주 한 분 한 분에게 큰 인연의 복덕이 회향되기를 발원한다. 또한 이번 공덕을 원력 삼아 더욱 정진해 우리 개인과 사회가 불국토로 나아가도록 끝까지 함께 정진하자"고 당부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태조 왕건 사찰 천흥사지' 사적 지정 추진된다

천안시, 8월 14일 학술대회
고려 왕실 사찰 가치 재조명



천안시는 8월 14일 천흥사지 사적 지정을 위한 학술대회 '고려 태조 왕건의 사찰 천흥사지'를 개최했다.

천안시가 서북구 성거읍 천흥사지의 '사적' 지정을 추진한다.

천안시는 8월 14일 충남역사문화연구원, 한국중세고고학회와 '고려 태조 왕건의 사찰 천흥사지'를 주제로 '천안 천흥사지 사적 지정을 위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천안박물관 2층 공연장에서 열린 이번 학술대회는 2019년부터 올해까지 네 차례에 걸친 발굴 조사 성과를 토대로 천흥사지의 고고학적·미술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국가유산 사적 지정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회에는 천안시사암연합회장 도언 스님(만수사)을 비롯한 스님들과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지역 단체장과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개회사에서 장기승 충남역사문화연구원장은 민정희 연구실장이 대독한 인사말을 통해 "천흥사지는 보물 2건(오층석탑과 당간지주)과 국보 1건(동종)을 간직한 고려 왕실 사찰"이라며 "84m에 이르는 대형 건물지와 가구식 계단, '천흥사' 명문기와 등 발굴 성과는 역사성과 진정성을 입증한다"고 의미를 짚었다.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도 "고려 초 최대 규모의 왕실 사찰임이 발굴로 확인됐다"며 "학술대회를 계기로 천흥사지가 고려의 상징적 유산으로 확고히 자리 잡고, 사적 지정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발표 세션에서는 다섯 개 주제가 다뤄졌다. 조원창 박사(국가문화유산연구원)는 천흥사의 창건 시기와 사역 범위를 고찰하며 고려 태조 시기 불교 정책과 왕실 후원의 배경을 분석했다. 엄기표 교수(단국대학교)는 오층석탑과 당간지주의 조형적 특징과 제작기법을 비교 연구했고, 김수현 학예연구사(고양시청)는 천흥사 동종의 제작 배경과 음향·문양의 특성을 분석했다. 이승민 대표(건축문화고수트디오)는 사찰 조영 배경과 중문을 통한 공간 구성 변화를 설명했으며, 홍영의 교수(국민대학교)는 천흥사의 고고미술사적 가치와 활용 방안을 제안했다.

종합 토론에서는 지병묵 전 국립문화연구원을 좌장으로 배철한 교수(울산대학교), 신용철 학예사(양산박물관), 이용진 박사(동국대학교), 박인홍 소장(국토문화유산연구원), 강호선 교수(성신여자대학교)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는 당간지주가 오층석탑 북쪽에 위치하는 독특한 구조와 천흥천과의 관계, 오층석탑의 제작 시기, 당간지주의 재질과 구조, 국보 동종의 역사적 의미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아울러 태조 창건설의 문헌적 근거 부족, 동종 명문(1011년)을 기준으로 한 건축·유물 조성 시기 연구, 명문 불상·지도·고문헌 자료 통합 연구를 통한 학문 간 교류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미소원 청년들, "독립영웅을 기억합니다"

광복 80주년, 개금종합복지관과
보훈가족 찾아 전한 감사의 시간



광복 80주년을 맞아 부산 지역 청년들이 국가유공자의 희생을 기리고 그 정신을 지역 사회와 함께 나누는 행사가 마련됐다.〈사진〉

부산 개금종합사회복지관(관장 류강렬)과 사단법인 미소원 청년회(회장 이다겸)는 8월 16일 '영웅을 기억하는 복지관'을 공동 주최하고, 독립유공자 및 한국전쟁 무공수훈자 가족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번 행사에는 미소원 청년회가 500만원의 기금을 후원해 의미를 더했다.

이날 류강렬 관장을 비롯해 미소원 청년회 회원들은 부산진구와 동구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직계자녀 20세대와 한국전쟁 무공수훈자 10세대 등 총 30세대를 직접 방문해 '나라지킴이 KIT'를 전달했다. KIT에는 영양제와 식료품 등 약 17만원 상당의 생활 물품과 개금종합사회복지관을 찾는 어린이들이 직접 쓴 감사편지가 포함됐다.

이다겸 회장은 "처음에는 월남전 참전 유공자분들을 시작으로, 지난해에는 한국전쟁 참전 유공자분들, 올해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유공자 가족들을 직접 찾아뵙게 됐다"고 설명했다.

류강렬 관장은 "이번 행사가 지역사회와 함께 국가의 희생을 기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2023년부터 이어 온 '영웅을 기억하는 복지관'을 앞으로도 지속해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과 그 가족들이 존중받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
인도/네팔 불교 성지순례 8박10일
출발일 : 2025년 10월 19일(일)
▶일 정 : 인천-델리-바라나시-보드가야-라즈기르-바이샬리-쿠시나가르-룸비니-쉬라바스티-아그라-델리-인천
▶동참금 : 310만원
인도양의 진주
스리랑카 6박8일
▶일 정 : 인천-콜롬보-아누라다푸라-미힌탈레-담불라-시기리아-폴론나루와-알루비하라-캔디-누와라엘리야-아홍갈라-콜롬보-인천
▶동참금 : 문의
관세음보살의 상주처
보타낙가산 +미륵도량 설두산 +상해 4박5일
▶일 정 : 인천-상해-보타낙가산-설두산-상해-인천
▶동참금 : 문의
중국 4대불산
-구화산+항주 4박5일
-오대산+북경 4박5일
-아미산+낙산대불 4박5일
현장법사의 발자취를 따라 떠나는
중국 실크로드 6박7일
▶일 정 : 인천-서안-천수-무안-돈황-투루판-우루무치-서안-인천
★ 체크포인트 : 국내선(2회), 고속열차(1회) 포함★
▶동참금 : 문의
성지순례자의 도반 마하연투어
예약·상담 02-365-7747 마하연투어
www.mahayeon.com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39(우정에쉐르) 1401호